

전남 블루이코노미 해상풍력 조성사업 본궤도

민선 7기 전남도 핵심시책 블루 이코노미 선도사업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 창출을 목표로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은 기존 육상풍력과 달리 풍력터빈을 호수·연안과 같은 수역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이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제주도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

구센터는 지난 2011년 제주 월정에 국내 최초 MW급 해상 풍력 발전기를 준공했다.

국내 해상단지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한국형 자켓 구조물 설계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청 출입기자단은 지난 4일 전국 최초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조성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 센터를 다녀왔다.

기자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광성조 풍력연구팀장을 비롯해 10여년에 걸친 노하우를 듣고, 전남 해상풍력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적절한 풍속·수심 국내 최고 입지조건 평가 에너지원 제주센터 향후 과제·노하우 공유

곽 팀장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풍부한 풍량과 수심 등 해상풍력발전이 필수적인 전혜의 자연조건을 갖췄다는 것이 곽 팀장의 설명이다.

곽팀장은 “동해의 경우 바람이 강하지만 수심이 깊어 해상풍력이 들어서기 어렵고, 남해는 수심이 얕지만 바람이 약해 경쟁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반면 전남의 경우 7m/s 이상의 풍부한

풍속과 적절한 수심 등 해상풍력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팀장은 전남의 해상풍력발전이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다양한 기술개발로 과거와 달리 해상풍력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곽 팀장은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설

비비용이 육상풍력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돼 그간 경제성이 없는 기술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러나 기술개발이 진전되면서 초기 설치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풍력의 경우 지면마찰이 있지만, 해상풍력은 꾸준한 바람이 공급돼 많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 먼 바다에 설치돼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팀장은 신안 해상풍력이 마주하게 될 과제들과 이를 해결해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과거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먼바다에 풍력설비가 설치된 까닭에 어업활동도 중 저인망 어선에 케이블이 걸려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어장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곽 팀장은 “유럽 등 선진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전력선을 해저 밑에 매립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시공 당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개발돼 최근에는 오히려 산호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장형성에 기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정실에서 정례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딜, 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문 대통령, 당정청 연석회의 겸한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렸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뉴딜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 무려 48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고, 이제 구상의 단계

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진화·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며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한 경제활력 개척,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용적 전환, 지역의 경제활력 중심 역할 등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소개한 뒤



“당과 국회의 역할에 매우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

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달라”며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초당적 방미대표단 추진 합의

박 의장·원내대표 동행...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TF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16일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의장이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TF를 꾸려 논의한 뒤 개정을 마련,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공개 검증으로 많은 인사청문회 대상 직책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별다른 이

견 없이 TF 구성합의가 이뤄졌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을 가능한 한 많이 처리하자는데 공감하면서 충실한 논의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의 상당시간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 논의에 할애됐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동시임명 자체에는 합의했으나, 발표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 참석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뉴딜예산 삭감 경제도약 저해”

“중대재해법·공정 3법 이면에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 초석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에 협력해 주리라 믿는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19 이후 경제도약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면에 처리한다면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가동 민주 “정권 재창출 분수령 필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으로 보고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선거에서 국민께 선택을 받느냐가 정권 재창출에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민생문제가 맞닿아 있어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지만 돌파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